

전진'95 :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

화학산업과 물류의 중요성

화학산업계가 물류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산업계는 91년이후 수출물동량이 급증한데 반해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항만, 도로 등 물류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물류비용으로 소모해야 하는 실정이다.

물류문제는 단지 화학산업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수출입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또 어제 오늘에 와서 지적된 사안도 아니나, 국내 물류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수출에 관여해본 관계자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핑계로 납기를 맞추지 못해 신용이 깎이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과거에는 관계자들의 부주의나 국제 상관계에 대한 무지, 사명감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두세달 전에 있지도 않은 수출오더를 가상해 생산을 준비하고, 육상 운송수단을 확보하며, 선박을 예약해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

여천석유화학단지의 경우 중흥부두가 있으나 선박 접안능력 및 선하역량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으로 육상운송을 한 후, 수출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런데 최근 부산항의 물류사정이 악화될대로 악화, 컨테이너 잡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선하역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부산까지의 육상운송 또한 극히 나빠 물류코스트가 급증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를 들면, 부산에서 여천까지의 컨테이너 운송 공정요금이 28만5000원이지만 트레일러회사에서는 차량부족을 이유로 공정요금의 2배에 가까운 50만원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산의 컨테이너세 2만원, 터미널 화물처리비용 7만6000원을 더하면 60만원이라는 비용이 든다.

이것은 부산지역의 물류사정이 극히 좋지않기 때문인데, 차량부족과 과적단속을 이유로 부산시내 컨테이너 운송료를 7만7000원에서 14만원으로, 20피트기준 화물중량이 16톤만 넘으면 30%의 할증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비용은 미국 시애틀에서 부산까지의 선박운송료 900달러(68만6000원)와 맞먹는 비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통이 원활치 못하다보니 부산에서 서산이나 반월까지 중화학제품을 운송하는데 적게는 20일 많게는 40일이 소요되고 있어 수출입 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해상운송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까지 ...

더군다나 유럽운임동맹은 부산항의 혼잡을 이유로 유럽으로 가는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1개당 100달러(20피트 기준)의 혼잡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 운임계약 기준통화인 달러의 약세를 빌미로 환차손을 보전해주는 성격의 통화할증료(CAF)까지 신설, 중동항로를 뛰는 13개 선사는 4월부터 컨테이너당 25달러의 통화할증료를 부과하고 있고, 한일항로의 할증료도 30.5%에서 34%로, 유럽항로도 7.5%의 할증료를 받고 있다.

터미널의 화물처리비용(THC)도 크게 올라 한중항로와 동남아항로 선사들은 5월1일부터 컨테이너당 20피트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40피트는 7만5000원에서 9만원으로 20%씩 인상했다. 한일항로는 화물처리비용을 40%, 유럽항로도 8.9% 인상을 요금을 5월부터 적용받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계는 최근 합성수지 수출이 크게 늘고 가격까지 급등해 3년여만에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호기로 생각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의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동남아·중국을 비롯 유럽지역에 까지 수출선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물류비용이 급증하고, 수송기간이 길어진다면,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물거품이 되거나 많을까 걱정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특히 범용제품 수출에 있어서는 가격이 수출의 제일요건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딜리버리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가격을 맞추고, 기술서비스를 충실히 한대도 납품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거래관계는 끝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이나 정부나 물류코스트의 상승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류, 그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5/6/29>